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예수님의 설교

본문: 요한복음 6:41-59

59절을 읽어보면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양떼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힘을 쏟아 설교하시고 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하려 함이라고 하셨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잘 먹여서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자 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의 양떼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란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고는 못배기는 그 사랑이 넘치고, 기쁨, 평안, 감사가 넘치고 마음이 뜨겁고 능력이 넘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주를 섬기는 뜨거운 열심에 흘러 넘친다. 이와 같은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고 확신이 넘치고 용기 자신감 의욕이 넘친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젊은 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었다고 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버나움 설교를 들어 보시기 바란다. 이 설교는 3개의 대지로 구성 되어 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 첫째, 성부 하나님, 둘째, 성자 예수님, 셋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다.

I. 예수님께 양들을 이끄신 아버지

1. 아버지의 뜻 : 믿는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모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마지막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였다. 육신적으로 죽어도 다시 살린다는 것이다. 39,40,44,54를 읽어보라.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을 의미한다(요한복음 5:28-29)

2. 하나님은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 우리를 이끄심으로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65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다.

3.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께 이끄시는가: 가르치심으로

45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절에서보면 아버지를 본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다. 아버지를 본자는 오직 예수님 밖

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가르침, 곧 성경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끄신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가르침이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다. 제가 지난 주 방송한 유튜브에서 불썬의 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성경은 우리를 죄를 깨닫도록 도와 예수님께 인도하신다.

내가 대학생들을 전도할 때 서울대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학생이었다. 그런데 항상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상투적인 지식은 많은데 하나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7-8명의 학생들과 함께 한양대 앞에 있는 여관방을 빌려 합숙을 하며 1주일동안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다. 식당에서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오로지 성경읽기에만 전념 했다. 신구약 성경 통독을 마친후 그 형제가 통곡을 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큰 결심을 하고 그 후 확신 있는 신앙 생활을 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짐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나가게 하신다.

II.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님

1. 이 떡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계속 만나를 주었듯이 그들에게도 계속 빵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만남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다(32).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떡, 만나가 아니고 참 떡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는 하늘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에서 오신 목적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다. 33, 35, 38, 39, 40, 47-51, 58을 읽으라.

2.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저신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고 했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예수님께 나온자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다.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기들을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말인가?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것이다.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다른 몸이 찢기시고 피가 줄줄 흘리며 십자가에 못박혀 골고다에 세워 놓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다. **먹고 마시는 것과 믿음이라는 말을 서로 대체해서 사용한다.** 29, 30, 35, 36, 40, 47, 64*2, 69 에서는 9번 믿는다는 말을 사용했고 50, 51, 52, 53, 54, 56, 57, 58절에서는 먹는다는 말이 8나 오고 마신다는 말까지 합하면 11번 나온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표현은 같은 의미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이다. 믿음이란 단지 관념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마음 속 깊이 믿고 받아 들인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다. .

인간적으로도 누군가 감동적인 강의를 하면 그 연사의 말에 깊이 빠져 들어간다고 하지 않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는 경우, 속마음으로 피의 능력을 깊이 맛보려는 자세를 가질 때 피를 마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의 보배로움과 능력에 대한 감각으로 가득 채워 질 경우 피를 마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일은 **기도와 성경 읽기와 묵상**이 포함 된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사유화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것이 되어야 한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내 개인적으로 내 영혼에 깊은 영향이 미치는 것이 영생을 얻는자, 풍성한 생명을 누린자의 삶이다. L

그리할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우리가 예수님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안에 거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과 깊은 연합을 의미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가?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듯이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과 그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와 같은 그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드려야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밤 제자들과 함께 무슨 일을 했는가? 성찬 예식을 재정하셨다. 떡을 주시며 잔을 주시면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깊은 연합을 체험 할 수 있다.

즈윅글리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영혼에 영양을 주고 새롭게 한다고 했다. **칼빈**은 성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부터 영양을 받아서 주님의 몸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의 능력에 참여한 존재가 된다고 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연합된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설명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해력으로 납득 할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했다.

요한복음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신비이지만 우리가 참다운 믿음을 가질 때 영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온전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한다고는 것을 살펴 보았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령님께 하신 일은 무엇인가?

Ⅲ. 살리는 성령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 진리를 너무 깊고 오묘해서 우리가 다 이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가 63절에 나온다.

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 진리를 깨닫는데 육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아무리 예수님과 같은 훌륭한 분이 복음을 전해도 육적인 생각만을 하는 사람들은 설교가 너무 어렵다. 재미없다.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떠난다. 오늘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 들으려 설교 잘한 사람들을 찾아 다니는데 이해 하기 쉽고 재미 있는 설교가 우리의 생명을 풍성히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좋은 오디오북 듣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참 된 복음을 설교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해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참된 복음이 설교 된 곳에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깨닫지도 못하고 흥미도 없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만 가지고는 참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참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다.** 육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 할 수 없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다. 41-42, 52, 60, 66절을 읽어보라.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는데 매우 열심이다. 22-26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나 **그들은 무익한 육의 문제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야 마는 불행 하는 자들이었다. 66절을 읽어보라.

결국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수 천명이 다 떠나고 심지어 그의 제자 중에서도 다 떠나고 말았다. 66절 말씀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이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답했다. **68-69을 읽어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64절에서는 너희중에 믿

지 않는자가 있다고 했고 70절에서는 한 사람은 마귀라고 하였다. 이는 12중의 하나로서 예수를 팔자 유다를 의미한다. 유다의 문제도 항상 육적인 일에만 빠져 있었다.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설교의 열매는 겨우 11명의 사도들에게 믿음을 심는 것이었다. 이 믿음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다. 마태복음 16: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수 천명이 떠나고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남은 11명의 자제자들이 온 세상을 변화 시켰다. 본문에서 12제자들과 무리들과 다른 점은 제자들은 16-21절에서 물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자들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신앙은 매우 연약했다.

오순절의 설령 강림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만자 그들의 믿음은 누구도 방해 할 수 없는 대담한 능력을 나타냈다. 그 거대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권력자들이 그들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배움이 없었던 제자들, 이름 없는 제자들 성령 충만으로 믿음이 분명해 질 때 무서울 것이 없이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었다. 결국 소수의 제자들의 믿음이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곧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는 것이다.

27-29절을 읽어보자.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다.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하셨다. 그렇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신자란 믿음을 일로 알고 일하는 것이다.** 믿는 일이 손발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봉사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 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였다. 이것은 믿음 속에는 **기도와 묵상과 성경 읽기가 포함 된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나님의 일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라면 요즈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한다. 믿는 자는 독기가 있어야 한다. 목숨걸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인이 된 **채인숙 목사**가 생각났다. 이 시대에 찾아 보기 힘든 믿음의 사람이었다.

요즈음 많은 목사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택시 기사도 하고 다른 직업을 갖는다. 이것은 슬픈 일이다. 목사님 한 분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성도들이 살아 나는데!! 한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3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다.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돈과 성도들 500명과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다, 나는 돈 없이도 성도수 없이도 목사 한사람만 세워도 능히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30교회가 아니라 100교회도 1000교회도 개척 할 수 있다. 어떻게? 참 믿음 있는 목사 한 사람만 키우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우리가 4대 비전을 이루는 일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성령을 부어 주셔서 모든 것을 하게 도우신다. 성령이 충만하면 큰 믿음으로 젊은 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다고 하였다. 나는 아직도 100개의 교육관의 꿈을 잃지 않고 있다. 이제는 장소가 교육관이 아니더라고요. 줌으로 얼마든지 100개의 교육관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100개의 교육관 만들자. 이런 찬송이 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힘쓰자. 이 찬송가 357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일이 믿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자.